



아쉬움 속 문 닫았던 삼정더파크, 시립동물원으로 부활한다

6년 법정 공방 끝 부산시 478억여 원에 인수 결론 4월 15일 매매계약... 정비 거쳐 2027년 완전 개장

오랫동안 부산진구의 자랑이었던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이 ‘부산시 공립동물원’으로 부활한다. 부산시는 최근 옛 삼정더파크 동물원을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7년 완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4월 15일 약 478억2,500만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운영권을 인수한다. 인수 후 동물 관리 등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이달 초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약금과 운영비 등 총 75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3월 현재 동물원에

는 115종 443개체의 동물이 여전히 사육사들로부터 관리받고 있다. 이로써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은 2014년 4월 많은 기대를 받으며 개장한 지 6년 만인 2020년 4월 문을 닫은 후 다시 6년 만에 재개장 소식을 전하게 됐다. 시는 새로운 동물원의 비전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정하고 어린이대공원의 자연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는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

를 위해 이미 지난달 9일 2억 원을 투입해 ‘동물원 정상화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종합계획 수립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범 개장을 거쳐 내년에 완전 개장을 하게 되면 이달 초 정식 발효된 금정산국립공원 백양산 지구와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부산진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구,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 참여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진구는 지난 2월 27일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공배달앱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뤄졌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수수료 혜택 및 빠른 정산, 이용 금액 적립 혜택, 지역화폐 결제기능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입점 수수료, 월 이용료, 광고비가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공형 배달앱으로 전국 50여 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경제관광과 경제정책계 (605-4482)



6·3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부산진구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2월 26일 구청 대강당에서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초빙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서면 거리에서 노래할 버스커 모집합니다”

금·토 저녁 ‘버스킹존’ 운영 월·화 홈페이지에서 신청

(재)부산진문화재단은 2026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서면 일원 ‘부산진구 공식 버스킹존’에서 자발적으로 공연할 버스커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버스킹존 운영 사업에는 나이와 장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버스킹 신청은 매주 월·화요일 부산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버스킹 공연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부산진구 공식 버스킹존은 ▲롯데

백화점 후문 쌈지공원 ▲서면문화로 분수대 앞 ▲서면 젊음의 거리 ▲놀이마루 입구 ▲동해선 부전역 광장 등 총 5곳이다. 또한 버스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버스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버스커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단에서는 자발적 버스킹 활동에 나서는 버스커에 대해 모니터링을 펼치고 공연 영상 제작도 지원한다. 그리고 향후 ‘우수 버스커 내꺼 데이’ 행사를 통해 우수 버스커를 선정하여 프로필 및 영상 제작, 부산진구 버스킹 페스티벌 자동 출전, 백양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부산진문화재단 예술지원팀(926-0028)

제60회 납세자의 날 ‘우수납세자 표창’

부산진구는 3월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및 세정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성실한 세금 납부로 모범이 된 납세자 3명과 지방세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2명에게 패가 전달됐다.

표창 대상자는 ▲류상민(성우합판목재상사 대표) ▲박중광(나우종합상사 대표) ▲장후남(브라운도트 서면1호점 대표) 등 우수납세자 3명과 ▲공치성(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최은정(BNK부산은행 직원) 등 세정발전 유공자 2명으로 총 5명이다. 문의 : 세무1과 세무관리계 (605-4502)



버스커 사전등록신청 버스킹 신청 부산진구 유명가수 유튜버

Are You Ready?